

'스쿨버스' 대책 마련 시급

자가용 유상운송규제 조치로 운행 중단 위기

수원캠퍼스 스쿨버스가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 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서 경고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운행이 어렵게 됐다.

이번 경고조치는 전 스쿨버스 운행업자였던 김선영씨가 개인회생 신청에 의해 지난 7월 수원캠퍼스 스쿨버스운행이 자가용 영업임을 고발하여 일어난 것으로 경찰청의 약식재판문을 거쳐 학교차 1대, 임대업자 4대에 각 2백만원씩 1천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경고조치를 한 상태이다. 이에 학교측은 학교차에 부과된 벌금 2백만원만을 낸다는 원칙

을 세우는 한편 한국의국어대학교(왕산), 강남대학 등 각 대학 스쿨버스 담당자로 구성되는 '교통대책 위원회'를 조직, 스쿨버스에 대한 법적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보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청을 통해 각 대학의 스쿨버스 운행이 모두 자가용 영업임을 지적하여 법원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업자측은 해당 업자 3인 중 2인이 벌금형 거부, 현재 버스운행을 중지한 상태이며 남은 업자가 고등법원에 벌금형의 철회를 위해 항소재판을 신청해 놓

고 있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현 시점이 방학임을 들어 사법작업 등 학생대중사업이 어렵다고 판단, 개강과 더불어 서명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설】 이번엔 문제가된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법'은 자가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를 할수 없다는 요지의 법안이다.

현재 스쿨버스의 경우 수원캠퍼스 스쿨버스의 타대학도 스쿨버스의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는 피할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스쿨버스의 운행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복지의 차원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 소재 지방캠퍼스 학생의 약 80% 이상이 스쿨버스에 통학을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통약

제'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이법안이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책이다.

이상에서 볼때 '자가용 유상운송 규제법'에 스쿨버스에 대한 법외조항등의 법적특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과대 의료봉사활동 실시

'초석회', '경희의대합창단' 등 참가

의과대학 의료봉사단 '초석회'와 '경희의대합창단'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20여명이 참가한 '초석회'는 의료봉사 활동을 오는 2월1일부터 5일까지 평창군 미탄면에서 가지며, '의대 합창단' 소속 40여명은 오는 31일부터 2월5일까지 평창군 방림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또

한 한의대 동아리연합 봉사분과인 '녹수', '녹원', '피닉스', '정록' 등도 이번날 중순부터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학교당국과 경희의료원측의 지원금이 전무한 상태여서 선배들의 지원을 통한 자체경비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삼성전자, 전자과에 교육기자재 기증

컴퓨터 등 총 6천여만원 상당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는 지난 11월 26일 삼성전자로부터 컴퓨터 AT 5대, 프린터 2대, 교육용실용기자재등을 기증받았다.

총 6천여만원 상당의 기자재중 컴퓨터 AT와 프린터는 현재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전자공학과 컴퓨터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용 실험기자재는 기증실에 보관되어 필요할때 출수있도록 비치되어 있다.

"경희 발전위한 기구로 이끌터"

제3대 교수협의회장 원운순(의대) 교수

"사실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 없이 교수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의는 경희의 발전에 분명이 필요한 기구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교수들중 누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반가운 마음으로 교수협의회의의 장을 맡을 것입니다." 이번 교수협의회총회에서 제3대 의장으로 선출된 원운순(의과대학 영문과) 교수의 인터뷰이다.

원 교수는 "총회를 전제의 의사를 반영하고 연구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담가는 자리이기때문에 어깨가 매우 무겁다"는 원교수의 교수협의회의에 대한 몇가지 입장을 들어본다.

▲ 교수협의회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원초적 기능이 학문의 탐구와 연구인 만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교당국과 학생사이에서 이해와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 대학내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의 인격도야와 지적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지난해 교수협의회의에 대한 견해는.

-교수연구비에 대한 과세문제

인터뷰



"연구활동지원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지향할것"

논이나 안식년제 도입등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선 교수협의회의 사업이 부실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교수협의회의가 출범한지 올해로 4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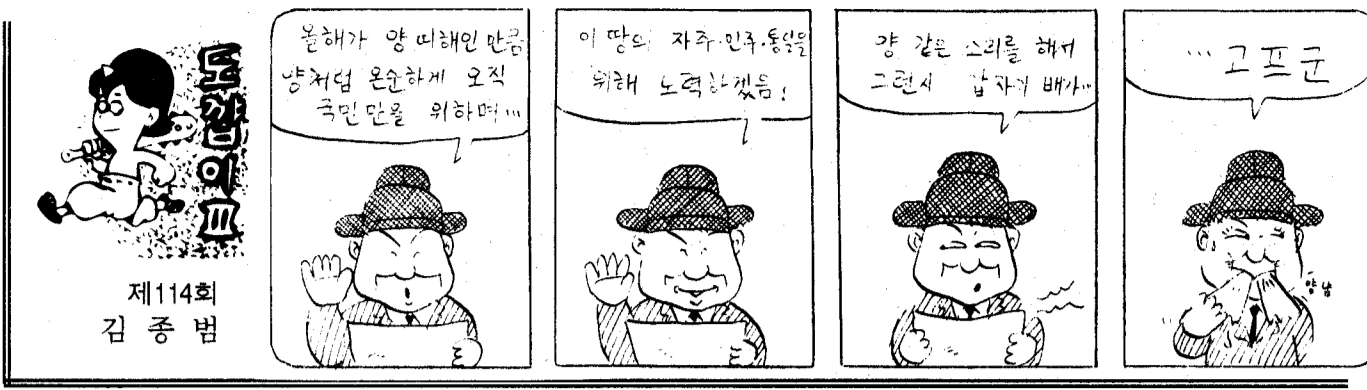
▲ 올해 교수협의회의의 운영계획과 주력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교수연구활동

언론인문학회 송년모임

'고향언론인 동우회'는 지난 14일 한국일보사 송년클럽에서 송년의 밤을 가졌다.

본교출신 언론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행사에서 이병희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희의대로서 어디가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되며 앞으로 더욱 좋은 모임이 되도록 기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노트

◇...서기 2001년 1월1일 날 새 눈 많이 올
오늘은 원산에 계신 할머니네에 새배를 드리러 갔었다.
악덕자가가던 옆집아 저씨가 휘파람을 불며 우리 가 타 버스를 운전하라고, 거리는 노동자, 농민 아 저씨·아주머니들이 즐거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TV에서는 남북통일 10주년 기념공연을 나갔다. 우리 민족의 삶의 노래인 민요가 정겨운 밤이다.
아차! 내일은 친구들과 강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북한주류동농장에서 일 하시는 작은아버지도 만나야겠다.
(도겸이 일기 끝~)

학생회비 마련을 위한 투전대회

◇...학생회비 마련을 위한 투전 대회
서천골 재단대 학생회실에 요즈음 기묘한 동양화전 시회가 학생회 집행부의 가열한 참여속에 열리고 있다기에 알아보니.
동양화의 크기가 작을뿐 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으며 그림이 마음에 들 때마다 '쌩'이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평소 품행으로 미루어보아, 요번 전시회는 '학생회비 마련을 위한 집행부 투전대회'가 아닐런지.....
◇...KBS 기념품인 텔레비전 주세요!
TV를 소유한 죄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심판(?)이 항간에 파문을 일으켜 대부분의 가정이 KBS가 안나오는 TV를 찾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는데.
이는 방송공사가 시청료 거부운동이 잠잠해진 틈을 타 최근 시청료를 미납한 읍단위이상 1만여가구의 가전제품 압류 제징수에 나섰다고.
◇...신상기록카드(일명 블랙리스트)
△명명: 날치기
△생년월일: 88년4월26일생
△특징: 성격이 급한데다 폭력적이고 어비함
△취미: 국구운동, 좌위 남용, 인기영양, 골프 등등
△특기: 30초만에 19개 안전처리(특히 예산부분 번

학원소식

교수동정

서청석교수 중국행

서청석(정경대·무역학과)교수=16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교수해외연수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선정돼 중국방문.

본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김은색 나이키가방=전현표(영문·3), 도서관3 열람실에서 ▲고동색 책가방=장치영(철학·2), 지난 12월15일 공대1층에서.

습득

본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김재경=김재정(사학·85) ▲김화정(생물·88) ▲김원일(경영·90) ▲강민석(경영·86) ▲이병근(무역·88) ▲박준덕(무역·85) ▲가죽지갑=정성기(법학·85)
【수원캠퍼스】▲학생증=신민선(일문·89) ▲인현수(불문·87) ▲이준주(사회·89) ▲박재령(사회·89) ▲수첩 ▲이준주(사회·89)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하승운(사학·1) ▲김성주(영문·3) ▲고성식(생물학·3) ▲김용대(법·3) ▲김윤환

도서 미납자

【서울캠퍼스】▲우승원(국문·2) ▲이창원(국문·2) ▲황상호(영문·1) ▲이기우(영문·3) ▲오승암(영문·4) ▲김병진(영문·4) ▲이정연(생물·3) ▲김화정(생물·3) ▲최철(사학·2) ▲이강석(행정·4) ▲김경관(정의·2) ▲정필중(정의·3) ▲김병호(정의·3) ▲박성준(경제·2) ▲김병태(경제·3) ▲조일래(경영·4) ▲안상선(경영·1) ▲박정훈(영문·4) ▲김기민(회계·4)
【수원캠퍼스】▲장원수(영문·3) ▲안도준(영문·4) ▲신해진(불문·3) ▲김영성(행정·2) ▲허양수(행정·4) ▲문태욱(경영·3) ▲김영수(경영·3) ▲임형모(경영·3) ▲백상운(경영·3) ▲최인수(무역·1) ▲권오승(무역·4) ▲박병규(무역·3) ▲박정순(무역·3) ▲김홍완(화학·1) ▲김순경(수학·2) ▲이상익(물리·2)

“남북당국은 실향민의 痛恨 헤아려야”

朔風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 있다. 여가 죽을 때 그 머리를 고향 언덕을 향해 둔다는 뜻이다. 호마의북풍 율조소 남지(胡馬依北風 越嶺南枝)라는 고시의 구절이 있다. 북쪽에서 난 호마는 언제나 북쪽 바람을 향해 서고 남쪽땅 율나라에서 온 새는 남쪽으로 향한 나무의 가지에 다 집을 짓는다는 의미이다. 이 모두 생명을 받고 태어난 고향에 대하여 절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표현법들이다.

세월 한파에 휩쓸려 사람들의 마음도 움추려 들고 있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 일수록 그 정도가 더할 것이다. 볼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의 첫머리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제각각의 모습으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불행하다'고 적어놓았다. 헤세가

'데미안'에서 사용한 레토릭처럼, '절절하고 따뜻한 내외가 지배하는 세계'를 참 문너머로 들여다 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형적이고 감각적인 추위가 쉬사리 내포적이고 심정적인 추위로 탈바꿈하는 현상이 발생할 터이다. 그리하여 연발 연시의 불우이웃돕기가 적지 않은 경우에 불우한 이웃끼리 돕고 끝나는 사태를 목도할 수 있다.

물질적인 근교와 궁핍만이 이러한 상황의 구체적인 절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새해를 맞으면서 또 한편 새봄의 방향과 열육이산의 통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쟁유민-실향민들의 주문 마음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은 모두가 잘못 흘러온 역사의 수레로부터 낙산한 비자의적 피해자들이다.

1976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법회의에서는, '이산가족들이 서로의 생사소식을 알고 또 만나려는 것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물론 온당한 논리가 없어서 이 당 위적인 천륜의 문제가 핵심의 외곽에 머물면서 남북대화의 테이블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당국이 진정으로 민족회합과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왜 그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그 답변을 내놓기로 한다면, 일천만이 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라는 매우 긴 명호를 가진 단체에서 사업국장이란 직책으로 8년의 세월을 보낸 필자로서는 죽어 책 한편 분량의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화급한 항목 한가지만 들기로 하자. 청장년의 패기만만한 나이로 곧 돌아오마 손짓하며 고향을 떠나온 이산가족 1세대들이 너무나 천추의 한을 품은채 유령을 달리해야할 시기에 이르렀다. 흐르는 물처럼 속절없이 40여년의 광음이 지나가 버렸다.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일의 물꼬가 터져야 한다. 나중에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법률적 지식에 의지해서 2·3세대들이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가슴을 울리는 감동이 있을 것이며 한민족으로서의 동일성과 화해를 촉발할 동력이 생성할 수 있겠는가.

(鍾會)

대학주보 기획광고

'준비는 곧 약속입니다'

아름드리 나무의 푸르름도 늦가을 겨울준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위한 준비가 없다면 나무는 한여름의 푸르름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은 끊임없는 준비속에 싹트는 것입니다

대학생활, 미래를 위한 도약기라면
가나긴 방학은 알찬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모두 알찬 방학생활로 대학시절을 보람차게 엮어갑시다

대 학 주 보 사